러시아 상트베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소장 한국 고서의 몇몇 특징*

정 병 설**

1. 선행 조사
2. 동방학연구소
3. 한국어 학습 자료 - 『표민대화』와 Corean Tales
4. 방각과 소설 - 『동몽선습』과 『설인귀전』
5. 결론

초록: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관련 장서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컬렉션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는 조사자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새로운 면모가 발견될 수 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각본, 소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주로 연구되었다. 자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나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밝힌 부분이 없지 않다.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고서 상당 부분은 1880년대에 조선에 와서 영국 영사를 지냈던 애스턴이 소장한 것들이다. 그는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먼저 한국어를 배워야 했는데, 그 학습에 이용한 책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의 한국어 학습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방식과 교재를 답습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애스턴은 자기 나름대로 조선의 현실과 당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 책을 기획 편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종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표민대화』와 같은 책은 그 내용 중에 조선에 대한 정보가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고, 그가 지시하여 편집한 『Corean Tales』의 경우에는 『표민대화』와 비슷한 형식의 '문답체' 서사를 등장시켰다. 『표민대화』에서 수정한 물가 정보나 『Corean Tales』의 문답체는 경제사나 소설사 연구에 있어서 주목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3년도 한국기록문화의 세계화 사업지원(KIKS-2013-451-13201)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겨진다.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고서들은 서적의 상업적 유통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자료이다. 이 가운데 1793년 사자관 안사현에 의해 간행된『동몽선습』은 본고를 통해 처음 보고되는 것이며, 40장본『설인귀전』이 1803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역시 종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의 상업출판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방각본, 방각소설, 애스턴

1. 선행 조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문화적, 정치적 지향을 극명히 보여주는 도시다. 18세기 초 러시아가 유럽의 확실한 일원이 되고자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서북쪽 끝에 건설해서 수도로 삼았으며, 이백년 이상 러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 대한제국의 초대 공사인 이범진이 부임한 곳도 모스크바가 아니라 이곳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을 지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아시아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러니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 또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출간하였다. 1900년 러시아 대장성에서 간행한『韓國誌』가 그것이다.[1] 출판지는 물론 상트페테르부르크이다.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코트비츠는 폴란드인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다.[2] 이 도시는 러시아 학술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한국학의 요람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표트르 대제는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학술아카데미를 만들었으며 대학을 세웠다. 또한 박물관을 만

1) 198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번역 간행한 바 있다.

2) 이민희, 2005『파란, 폴란드, 뽈스까』, 소명출판, 55면.

들어 세계 각지의 자료를 모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 러시아학술아카데미 산하 기관에 한국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것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들 기관에 소장된 한국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 러시아학술아카데미 산하의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트로체비치 교수와 구리예바 교수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상세목록을 작성한 바 있고, 그것은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동방학연구소에서 간행되었다. 사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1950년대에 이미 페트로바 교수와 예리세예프 교수에 의해 목록이 작성된 바 있었다. 최근 목록은 오십 년 전에 작성된 것에 비해, 새로운 자료가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훨씬 상세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의 한국학에 대해서는 소련과의 수교 이전에도 약간씩 알려져 있었다. 필자 또한 대학 시절 그곳에서 해설을 붙이고 영인하여 간행한 『쌍천기봉』(1962년 간행)을 본 적이 있다. 지도교수 김진세 선생께서 보여주셨는데, 간행 당시는 한국에서도 이런 장편고전소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놀라웠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러시아 밖에서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된 것은 2000년이 거의 다 되어서이다. 고려대학교 박성규·정우봉 교수 등이 동방학연구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러시아에서 논문을 발표했고,[3] 비슷한 시기에 일본 칸사이(關西)대학의 기시다(岸田文隆) 교수 또한 이곳을 방문하여 조사했다. 고려대학교 조사팀은 자료 상당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려대학교에 들여왔는데, 현재 60개의 마이크로필름통에 담겨 있고, 이를 다시 네 장의 CD로 제작했다. 현재 네 장의 CD 가운데 한 장은 손상이 있어서 읽지 못하는데, 나머지 세 장에 담긴 흑백 사진 파일로 된 자료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3) Park Songgyu, Ch'oe Toksu, Chong Ubong, Ho Sunch'o1., 2000 "Collections of Korean Manuscripts, Block-Prints, and Old-Print Books in Russia", Manuscripta Orientalia (International Journal for Oriental Manuscript Research), Vol. 6 No. 2.

1.
『의학입문』 571
『한어훈몽』 35
『표민대화』 143
『박고』 88
『하진양문록』 845
『몽옥쌍봉연』 249

2.
『해동역사』 1922
『삼국사기』 685
『남한일기』 353
『동래읍지』 58
『한독조약』 18
『상례초언해』 37
『주공해몽서』 41
『예수성교성서』 54
『조선물어』 22
『한어입문』 93
『조선견문록』 78
『무제(전장호 외)』 196
『역가필비』 124
『삼은시』 82
『절곡선생유적』 55
『이계유집초』 359

3.
『황강문답』 87
『쌍천기봉』 1338
『골동록』 36
『화한창수집』 45
『조선신보』 105
『삼국통람도설』 44
『최충전』 53
『설원』 21

『수사유문』 659
『보은기우록』 746
『화정선행록』 1410
『동유기』 225
『역언』 124
『일한선린통어』 81
*옆의 숫자는 사진파일 수.

기시다 교수는 주로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책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漂民對話』 『교린수지』 『인어대방』은 한국에서 영인 간행한 바 있고,[4] 『최충전』 등은 복사하여 학계 관련자에게 제공한 바 있다. 기시다 교수는 친절하게도 일면식도 없는 필자에게도 한 부를 보내주었다. 또 2007년에는 박진완 교수가 동방학연구소를 조사하여 2010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애스턴 문고의 한글 자료: 한국어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를 발표하였고, 최근 2009년에는 연세대학교 허경진, 유춘동 교수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허경진 교수 일행의 조사는 2012년 12월에 발표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전적에 대한 연구」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연세대학교 이윤석 교수가 동방학연구소 소장 40장본 「설인귀전」을 복사해 와서 소개한 바도 있다.[5]

이 밖에 러시아 최초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표트르 대제 인류학 민족학 박물관'(속칭 쿤스트카메라Kunstkamera)에 얼마간의 한국 유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여 2004년 『표트르대제 인류학 민족학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라는 도록을 발간한 바 있다. 여기에는 대한제국에서 당시 주한러시아 대사관에 보낸 초청장과 어떤 상궁이 쓴 한글 편지 등 흥미로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도 이 박물관에는 한국 코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1954년 북한 평양사범대학 교직원과 학생이 기증한 겸재 산수화 병풍(모사로 추정) 등이 전시되어

4) 편무진 편저, 1999 『교린수지』, 홍문각; 편무진, 岸田文隆 편, 2005 『인어대방』, 불이문화; 岸田文隆 편, 2006 『표민대화』, 불이문화.

5) 이윤석, 2013 『설인귀전 연구』, 경인문화사. 「경판 설인귀전 형성에 대하여」(2005)라는 논문을 통해 처음 소개했다.

있다.

이런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관련 자료가 아직 만족스러울 정도로 소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소개된 것이 원활히 공유되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료라는 것은 원래 다른 안목으로 보면 새로운 면모가 보이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의 여지가 적지 않기에 먼저 동방학연구소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간단히 서술한 다음,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힌 것을 보고하기로 한다.

2. 동방학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우려의 말을 들었다. 인종범죄율이 높다는 점과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시내를 다녔지만 그리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다만 연구소 등에서 자료는 물론 실내 촬영까지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꼈을 뿐이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앞서 동방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벌인 유춘동 선생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았고 상당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같은 시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종소 교수께서 자료 조사차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 일정과 약간이라도 겹치게 하려고 부랴부랴 서둘렀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차지원 교수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해 이런저런 정보를 들었고,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박선영 선생을 소개를 받았다.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익숙해졌고 하루이틀이 지나고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었다. 함께 동행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김유진 조교는 성실한 보조원이자 여행의 즐거운 동반자였다. 동방학연구소의 출입 허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구리예바 교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도서관(엄격히 말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학의 동양학부 도서실)도 조사하고자 했으나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담당자가 여름 방학 휴가 중이어서 열람할 수 없었다. 2013년 7월 1주일간의 짧은 자료 조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린다.

동방학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러시아학술아카데미 동양필사본연구소(영문공식명칭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Russian Academy of Sciences)이다.[6]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모스크바가 수도가 되면서 러시아학술아카데미의 본부는 모스크바로 옮기게 되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것은 지부가 되었다. 현재 러시아학술아카데미의 동양 연구 부분은, 모스크바에서는 주로 현대를 연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전근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여기 동양필사본연구소의 '필사본'은 꼭 필사본이라기보다 고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니, '동양고문서연구소'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 동방학연구소는 별도의 기관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양쪽에 걸치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 출입 허가를 얻어준 구리예바 교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동방학연구소에서 박사를 받았다. 동방학연구소에는 박사과정만 있다. 그는 대학의 교수이면서 동시에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전자에는 풀타임, 후자에는 하프타임으로 겸직하는 셈이라고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양학부와 동방학연구소를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동방학연구소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 인터넷 포털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동양학부를 찍고 있다. 현지에서 러시아문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은 영어로는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라고 하는데, 'State University'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이 맞나 의심하기도 한다. 대학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의 서북 편에 있는 바실리에프스키 섬에 있다. 도심에서 보면 네바 강 건너편의 섬이다. 그 섬의 남쪽 강가에 대학이 있다. 러시아학술아카데미 쿤스트카메라 옆이다. 그리고 동방학연구소는 대학에서 보면 강 건너편 시내 도심에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포인트인

6) 자세한 역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참조. http://www.orientalstudies.ru/eng

에르미타주 미술관 근처다. 에르미타주는 원래 러시아 황제의 겨울궁전이었는데, 동방학연구소도 그 일부였다. 동방학연구소의 낡은 이층 열람실 기둥과 벽의 화려한 장식을 통해서도 그 옛날의 영화를 엿볼 수 있다. 열람실 창밖으로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네바 강이 보이고, 바로 아래 강변에는 여름궁전으로 유명한 페테르고프로 가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요한 상징물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의 첨탑이 우뚝 서 있다.

동방학연구소의 육중한 정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 오른쪽 복도로 들어가면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다. 거기서 여권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받는데, 물론 사전에 소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 문을 통과해 다시 한 층을 올라가면 열람실이 있는데 옛 궁전의 무도회장답게 널찍하다. 서고를 출입할 때는 서고 문 밖 건너편 방 앞에 있는 벨을 눌러야 하는데, 벨을 누른 다음 서고 출입문 앞으로 가서 기다리면 사서가 문을 열고 용건을 묻는다. 사서에게 대출신청서를 받아서 자료를 신청하면 되는데 한 번에 다섯 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한 자료가 수십 책이라면 한 번에 모두 대출해줄 수도 있다.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5분이나 10분이나 사서가 말한 시간만큼 열람실에서 기다린 다음 다시 벨을 누르고 문 앞으로 가서 책을 받는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책은 잘 꺼내주었고 자료를 보는 데 별다른 제약은 없었다. 대출시간은 10:30분부터 17:30까지이며, 13:00부터 14:00까지의 점심시간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단 그 전에 빌린 책은 점심시간에도 볼 수 있다.

3. 한국어 학습 자료 - 『표민대화』와 『Corean Tales』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고서는 세 가지 경로로 수집되었다. 러시아학술아카데미에서 구입한 것,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자료 중에 이관된 것, 대한제국기 한국에서 영국 공사와 독일 공사로 일했던 애스턴과 묄렌도르프의 소장본을 구입한 것.[7] 그 가운데 묄렌도르프의 소장본은 십여 종의 경판한글소설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것이 애스턴 소장본이다. 애스턴 소장본은 동방학연구소에만 있지 않으며, 영국 캠브리지대학, 프랑스 기메박물관 등에도 있는데 그 양은 극히 적다.[8] 또한 동방학연구소의 자료들은 하버드대학교에 복사본이 있는데, 그것이 출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에 이용되기도 했다.

애스턴은 전체 이름이 William George Aston이며, 1841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퀸즈대학을 졸업하고 1864년 통역생 시험에 합격한 후 도쿄로 가서 통역관으로 활동했다. 1875년에서 1883년까지 고베에서 영사대리를 역임했으며, 1882년 8월에는 부산과 원산, 1883년 3월에서 5월까지는 서울을 답사하여 영국영사관의 부지를 알아보기도 했다.[9] 1884년에서 1885년까지 조선에 와서 영사로 활동했으며, 1889년 병으로 사임하여 영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일본 관련 저술에 몰두하다가 1911년에 죽었다. 그가 언제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Manual of Korean』(138)[10]라는 한국어 회화의 기본서라 할 수 있는 책에 고베의 자기방 밖 풍경을 그려 놓은 것이 있다. 이 책은 浦瀨岩次郎이 베낀 『交隣須知』, 『隣語大方』을 合本洋裝한 것인데, 제본하면서 본문 사이에 간지를 한 장 한 장 끼워 네 권의 두꺼운 책을 만들었다. 간지에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었는데, 그 간지에 그런 그림을 그렸다. 애스턴은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고베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다.

애스턴이 한국어 공부의 교재로 삼았던 책의 특징은 洋裝이다. 『Manual of Korean』은 물론, 소설 등의 한글방각본 자료를 양장으로 묶어 7책으로 만든 것도 있고, 「전운옥편」과 같은 자전 등도 자신이 보는 책은 단단하게 양장을 했다. 애스

---

7) 허경진・유춘동, 201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 전적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16면.

8) 박진완, 2010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애스턴 문고의 한글 자료 - 한국어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200면.

9) 한승훈, 2010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제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52, 한국근현대사학회, 65면.

10) 괄호 속의 번호는 트로체비치와 구리예바 교수가 간행한 동방학연구소 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일련번호이다. 이하 동일.

턴은 이런 책들로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그의 한국어 교재를 보면 다음의 삼단계로 공부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기초 한국어, 응용 한국어, 현실 한국어가 그것이다. 그리고 교재의 선택이나 학습 방법은 그전부터 일본인 통사들이 해왔던 방식을 답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한국어는 일본인들이 교재로 썼던 『교린수지』와 『인어대방』을 이용했는데, 앞서 말한 『Manual of Korean』이라는 책이다.[11] 『교린수지』와 『인어대방』은 각각 1881년과 1882년에 이르러 부산의 일본영사관 주도로 간행되었는데, 간행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교린수지』의 교정을 맡고 『인어대방』의 서문을 쓴 浦瀨裕가 있다. 『Manual of Korean』의 본문을 베낀 浦瀨岩次郎과 동일인으로 짐작된다. 『Manual of Korean』은 浦瀨岩次郎이 15살이던 1841년에 베낀 것으로 필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애스턴은 이 책을 착실히 공부했다.

응용한국어 교재로 대표적인 것은 『표민대화』다. 『표민대화』는 일본으로 표류된 전라도 출신의 조선인 선원이 일본의 조선 출신 傳語官을 만나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어관은 사츠마 곧 지금의 가고시마의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조선 도공 마을 출신이다. 조선 도공의 후예인 셈이다. 일본 역관이 조선 사정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에 대해 조선 선원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물어보는 것이 대단히 많아서, 조선의 외교, 정치는 물론, 쌀값이 얼마인지, 설탕을 먹는지, 약과는 어떻게 만드는지 등 다양한 주제의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진다. 특히 제2권에는 매사냥과 선박에 대해 자세히 묻고 있다. 이 책의 출발은 실제 표류민과의 대화를 옮기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 교재로 사용되면서 시대에 따라 내용이 약간씩 바뀌었다.

애스턴 소장본에는 두 종의 『표민대화』가 있는데, 하나는 표제가 없는 것이고(137), 다른 하나는 '표민대화'라는 표제가 붙은 책이다(142). 137번은 『표민대화』 외에도 한국어 기본 교재를 일부 베껴놓고 있고, 마지막에는 한국 이야기도 몇 편 있다. 양장한 것으로 보아 애스턴이 한국어 공부에 이용한 책으로 보인다. 142번은

11) 『Manual of Korean』은 각각 『교린수지』와 『인어대방』으로 나누어서 영인 간행되었다. 주석 4번) 참조. 그런데 영인본에는 본문 사이에 끼운 간지는 넣지 않았다. 간지에 쓴 내용은 외국인의 한국어 이해 또는 한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주목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편무진과 기시다 교수에 의해 영인 간행된 것인데, 이 두 종의 『표민대화』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차이가 영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137번에서는 부산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를 “왜관”이라고 한 반면, 142번에서는 “화관”이라고 했고,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는 사신을 앞의 것은 “修信使”라고 한 반면, 뒤의 것은 “信行使”라고 했다. 또 조선의 쌀값을 묻는 질문에서 앞의 것은 “일본 한 되에 팔구푼 한돈푼 ᄒᆞ오”라고 했고, 뒤의 것은 “日本 ᄒᆞᆫ슈되가 뉵칠분, 豊年이면 五分도 ᄒᆞᄋᆞᆸ고, 죠곰 農事가 잘못ᄒᆞ면 九分 ᄒᆞᆫ 錢 ᄒᆞᄂᆞᆫ 일도 드므니 잇ᄉᆞ오되, 거의 六七分之間이올ᄉᆡ” 하였다. 수신사가 처음 파견된 것이 1876년이니 137번은 그 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142번은 1854년에 姜蘇淳이 15세에 썼다고 했다. 이 책 제2권 뒷부분 본문 하단에 ‘苗代川佳人’ ‘朝鮮人’ 등의 낙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강소순은 일본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에 거주했던 조선 도공의 후예로 보인다. 한편 137번의 필사자는 애스턴의 한국어 교사로 알려진 김재국으로 보이는데, 그가 필사한 것으로 볼 때 필사 시기는 1885년 전후로 짐작된다. 두 책의 필사 시기 사이에 가로놓인 쌀값의 변동이 관심을 끈다.

이 밖에 애스턴이 이용한 응용 한국어 교재는 소설이다. 『Collection of Korean books in seven volumes』(83)에 거의 묶여 있다. 소설을 중심으로 방각본 자료 25종을 7책에다 묶어 양장하여 표제를 위와 같이 붙였다. 전 7책에 실린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숙영낭자전』 28장(간년 1860)
『소대성전』 36장
『조웅전』 31장
『심청전』 26장
『금방울전』 28장

2.
『임장군전』 27장
『적성의전』 31장

『장풍운전』 31장

3.
『계몽편』 24장
『언간독』 30장
『구운몽』 32장(효교신간)
『진대방전』 28장(『내훈제사』 포함, 『진대방전』 16장, 『내훈제사』 12장)
『용문전』 25장

4.
『양풍전』 25장
『백학선전』 24장
『남훈태평가』 38장(1863년 석동 간행)
『숙향전』 1권-33장, 2권-30장(1858년 야동 간행)

5.
『임진록』 1권-28장, 2권-28장, 3권-28장
『설인귀전』 30장
『장화홍련전』 28장

6.
『흥부전』 25장
『춘향전』 30장
『당태종전』 26장
『옥주호연』 29장(1851년 무교 간행)

7.
『신미록』 32장(1861년 간행)
『삼설기』 권지이-26장,[12] 권지하-26장(1848년 유동 간행)
『양산백전』 24장
『삼국지』 권지삼-30장(1859년 홍수동 간행)

---

12) 권지이-26는 판심제가 "삼설긔하"로 되어 있고, 권지하-26은 판심제가 "삼설긔" 또는 "삼설긔三"으로 되어 있다.

제3책에 묶인『계몽편』과『언간독』을 제외하면 나머지 23종은 모두 한글소설이다. 방각본 소설, 그것도 경판본 소설만 묶어두었다. 소설들 가운데 일부는 도쿄외국어대학에 소장된 경판한글소설처럼 본문 옆 한자어 옆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을 위해 이용된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자를 병기한 것은 애스턴이 아니며 애스턴을 도운 선비로 보인다. 제3책에 실린『용문전』맨 마지막에는 한자를 병기한 주석자가 단 듯한 말이 적혀 있는데, "아는 거시 업서 문ᄌᆞ를 바로 긔록ᄒᆞ지 못ᄒᆞ여스니 다른 션비의 다시 ᄡᅳ기를 바라오."라고 했다. 한문을 공부한 선비지만 한글소설에 한자를 달기가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묶인 책들은 방각본으로서 대단히 가치가 높은 책들이다. 1848년 간행된『삼설기』를 비롯하여, 1863년 간행의『남훈태평가』까지, 간행년도가 나타난 책만 해도 모두 현전하는 경판소설로는 이른 시기에 출간된 것들이다. 작품의 장수를 보면 대개 서른 장 내외인데, 이른 시기의 출간된 것임을 보여주는 표지라 할 수 있다. 경판소설은 후대로 가면 장수가 25장 내외로 줄었다가 다시 20장 내외로 준다. 다시 말해 일곱 책에 묶인 경판소설들은 거의 초기본인 셈이다. 책의 상태로 보아도 이 책들은 거의 저질 종이에다 찍은 것인데, 이는 이것들이 당대에 실제로 유통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뮐렌도르프가 가지고 있었던 경판소설들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뮐렌도르프가 소장한 책들은 깨끗한 종이에 잘 찍혀 있고 제본 상태도 깨끗하다. 노란색 표지에 붉은 실로 제본되어 있으며, 표지 문양도 동일하다. 86번의『설인귀전』(40장본), 88번의『소대성전』(24장본), 91번의『진대방전』(20장본), 92번의『장경전』(35장본), 93번의『심청전』(24장본), 94번의『삼설기』(26장본), 95번의『홍길동전』(24장본), 96번의『조웅전』(30장본), 97번의『흥부전』(25장본), 98번의『양풍전』(24장본), 99번의『적성의전』(23장본) 등이 모두 그렇다. 외국인에게 팔거나 선물하기 위해 따로 제작한 책인 듯하다. 국립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 있는 경판소설들은 애스턴과 뮐렌도르프 소장본 중간에 있는 것이다. 좋은 종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악하지도 않으며, 제본은 잘 만든 개인 문집처럼 두꺼운 종이로 잘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엉성한 아마추어 솜씨도 아니다. 방각본소설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었던 것이다. 뮐렌도르프

소장본은 24장 전후의 분량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는 대개 전대의 30장본이 축약된 경우가 많다. 93번의 『심청전』의 경우에는 마지막 줄이 “믈 ᄒᆞᆫᄒᆞ더라. ᄎᆞ셜 님 부인이 승슌군ᄌᆞᄒᆞ고 비복을 의로 ᄃᆞᄉᆞ”로 아예 낙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88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나온 후대본들에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 제본 상태로 보면 일견 좋아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적지 않은 이본인 것이다. 이런 소설 출판의 정황을 감안하여 애스턴은 일부러 고본의 한글소설을 구한 듯하다.

애스턴은 이들 소설에다 비평을 달기도 했는데, 1887년 1월에는 『장화홍련전』에 비평을 달았고, 『춘향전』에는 1892년 로스니(Mr. Rosny)에 의해 프랑스어로 번역 간행된 『춘향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즉 애스턴은 1887년에 이미 이 소설들을 보았고, 1892년 이후에도 계속 공부했다. 애스턴은 조선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한국어를 공부했던 것이다. 애스턴은 제6책의 『당태종전』을 ‘당리종전’으로 읽을 정도로 한글을 썩 잘 읽지 못했다. 그런데도 『장화홍련전』에 대해서는 조악한 자체와 오자를 말하면서 문학적 가치도 수준 이하라고 평가했다. 한국 사람과 함께 소설을 읽으며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애스턴의 한국어 교사로는 김재국이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김재국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짧은 메모 외에는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김재국은 기독교인으로 애스턴의 공부를 도왔고 애스턴이 필요한 한국 책을 필사하고 편집했다. 애스턴은 김재국을 시켜 현실 한국어 교재를 만들기도 했는데, 에도시대 일본인이 만든 한국어 교재나 고전소설의 한국어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당대의 현실 한국어를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인다. 애스턴은 『표민대화』를 새로 베끼게 했고, 『易言』(74,75)과 같은 개화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베끼게 했다. 그리고 새로 이야기책을 편집하게도 했다. 『이언』은 1871년 간행된 것으로, 중국의 鄭觀應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논한 책이다.

애스턴이 편집하게 한 이야기책으로는 ‘雪寃 全’(100)과 『Corean Tales』(102)가 있다. ‘설원’은 ‘원한을 푼다’는 말인데, 『A Corean Tale』이라고 적기도 했고, ‘친사간상전’ ‘사돈 끼리 서로 싸움이라’고도 적었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중매쟁이가 신랑 신부 집을 싸우게 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표지 안쪽에

김재국이 짓고(composed) 쓰고(written) 장정한(bound) 책이라고 애스턴이 연필로 쓴 부분이 있다. 1885년 6월에 썼다고 했다. 이 이야기가 독특한 점은 문답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중매쟁이와 양반집 사람의 대화를 '문'과 '답'을 나누어 적고 있다. 『표민대화』의 문답체 형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애스턴이 실제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김재국에게 문답체를 요구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1885년 8월 7일에 완성한 『Corean Tales』(102)의 마지막 이야기인 "用智娶寡"(꾀를 써서 과부를 얻다) 등에서도 문답체가 보이는데,[13] 두 달의 시차를 두고 베낀 책들에 문답체가 등장하는 것은 주목에 요한다. 흔히 문답체 서사는 1905년 『소경과 앉은뱅이의 문답』이나 1906년 『車夫誤解』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보다 이십 년 앞서 '문'과 '답'을 엄격히 구분한 문답체 서사가 있었던 것이다. 문답체 서사의 형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과정이다.

4. 방각과 소설 - 『동몽선습』과 『설인귀전』

애스턴 등 이 시대의 외국인들은 전대 일본인들의 한국어 학습 방식에 따라 소설을 교재로 이용했고 따라서 방각본 소설에 관심을 가졌다. 또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따로 한자어 공부를 했는데, 그 기초 교재는 『유합』과 같은 책이었다. 이런 책들 역시 대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각본이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이들의 컬렉션에는 소설과 방각본이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 소설 외의 방각본을 보면, 판이 다른 『천자문』이 두 종 있고(148, 149), 『유합』(150) 한 종과 『동몽선습』(152)

13) 이 책에 대해서는 울리아나(Kobyakova Uliana), 2008 「애스톤문고 소장 『Corean Tales』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32, 한국서지학회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소개했고, 최근 허경진, 유춘동, 2013 「애스턴(Aston)의 조선어 학습서 『Corean Tales』의 성격과 특성」, 『인문과학』 98,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깊이 다루었다. 이 책의 문답체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향후 소설사의 근대적 변전과 관련하여 집중 조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한 종이 있다.

이 가운데 『동몽선습』은 종전의 연구에서는 그 의의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이본이다.[14] "昭陽赤奮若 大呂旣望後 新刊"이라는 篆字로 쓴 간기가 있고, 그 아래에 방형의 인장 모양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이 이본은 문헌연구가 박철상 선생이 한 강좌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박철상 선생 역시 이 이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박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아래의 인장은 "竹溪" "?巖安思賢書"로 읽히는데, 안사현은 정조 때 사자관이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사자관 안사현은 정조 원년(1776)부터 순조2년(1802)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간기에 나온 '昭陽赤奮若' 곧 계축년은 1793년이 된다. 대려가 12월, 기망이 16일이니, 1793년 12월 16일에 간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서로 간기를 표기한 것으로는 『설인귀전』 40장본이 있다(86). 뮐렌도르프의 소장본인 이 이본은 독특하게 첫 면에 "경성개간"이라는 간기가 있고, 마지막 면에도 篆書로 적힌 간기가 있다. 이 자료를 처음 한국에 소개한 이윤석 교수는 "간기는 없다"고 했고,[15] 트로체비치와 구리예바 교수가 만든 목록에는 '小篆'으로 된 간기가 있다고 했지만 읽지는 못했다. 마지막 장의 篆書 간기는 "昭陽作畢 巳月中浣"으로 읽힌다. '소양작강'은 계해년으로 1803년이나 1863년이 될 수 있고, 巳月은 4월을, 중완은 중순이다. 그리고 『동몽선습』과 마찬가지로 간기 아래에 원형 인장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浩然齋印"이다. 이 자료는 첫 면에 "경성개간"이라고 표시한 것, 마지막 면에 전서와 인장 모양으로 간기를 표시한 것, 그리고 40장이라는 당대의 다른 방각본 소설보다 열 장 정도 많은 장수 등으로 볼 때, 출간 연대가 다른 자료들보다 한 周甲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첫 면에 '경성개간' 식으로 간소를 표기한 것은 '효교신간'의 『구운몽』 『소대성전』 『춘향전』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16] 간소를 동명이 아니라 큰 지명으로 표시한 것은 '경

14) 류부현, 1990 「동몽선습의 서지 연구」, 『서지학연구』 5·6, 서지학회.

15) 이윤석, 앞의 책, 80면.

16) 효교에서 간행된 『구운몽』은 도쿄외국어대학에, 『소대성전』은 고마자와대학에, 『춘향전』은 하버드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혜은·유춘동, 2013 「미국 하버드옌칭

기개판'으로 표기한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임경업전』(1780년 간행)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서와 고갑자를 쓴 간기는 다른 소설에서는 일절 찾아볼 수 없다. 1863년 간행으로 본다면 40장이라는 장수는 동시기 서울에서 간행된 소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40장본 『설인귀전』의 간년을 1863년이 아니라 1803년으로 보게 한다.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에서 간행된 한자사전을 보면, 『전운옥편』이 세 질이 있고, 『어정규장전운』도 한 질이 있다. 155번의 1850년 유동에서 간행한 방각본 『전운옥편』은 양장을 했는데, 애스턴이 한국어 학습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154번은 한자의 음과 훈을 붉은 먹으로 인쇄한 투인본이다. 이 밖에 다른 방각본의 절반 크기인 袖珍本 『주공해몽서』는 간기가 없지만, 국립영국도서관에 소장된 1864년 銅峴에서 간행된 『울지경덕전』에 이 책이 배접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17] 이 무렵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160번의 『규합총셔 젼』은 지질이나 제본 등으로 보면 방각본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잘 알려진 1869년 간행의 親和室藏板本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배접지에 『송자대전』에 실린 한 글의 제목인 "與宋明甫"가 인쇄되어 붙어 있는데, 「여송명보」는 송시열이 송준길에게 보낸 편지로 이로 보면 이 책은 私刻本일 가능성이 있다. 표제의 제첨까지 친화실장판본과 흡사하다. 어쩌면 개인이 방각업자의 힘을 빌려 간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 164번의 『간독정요』는 목록에는 1책 76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7장이다. 유동에서 간행했다. 철종을 주상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년은 1850년에서 1864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장 후면의 '本朝國忌' 마지막에 붉은 색 종이가 붙어 있는데 "同治四年 奉旨欽差皂保 勅封李熙爲國王"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 동치사년은 1874년이므로 인출 시기는 이 이후로 추정된다.

애스턴 소장본 중에는 방각소설 외에 필사본 소설도 여러 편이 있는데, 『쌍천기봉』, 『수사유문』, 『보은기우록』, 『화정선행록』, 『하진양문록』, 『현씨양웅기』, 『동유

도서관 소장 한글 방각본 소설 연구」, 『한국비블리아』 24권 2호, 한국비블리아학회 참조.

17) 정병설, 2012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소장 경판한글소설 재론: 배접지를 통해 추론한 방각본의 간행 상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2, 한국고전문학회.

기』와 같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수사유문』과 『동유기』는 중국소설이다.[18] 허경진과 유춘동은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현씨양린기』, 『동유기』 등을 묘동 세책점에 구매한 세책본이라고 했으나, 이 문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들을 세책본으로 보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는 작품인 105번 『보은기우록』의 경우, 단정한 궁체 글씨, 기름 먹인 종이 등이 예사 세책소설과 차이가 있다. 더욱이 '침자리'와 권마다 있는 필사기도 없다. 세책이라는 증거는 책주인에 대한 욕설과 낙서, 그리고 책장의 수이다. 장수가 대략 31장에서 34장으로 세책본과 비슷하다. 제14권 말에만 "을유정월쵸오일묘동서"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이 필사기는 본문의 필체와 먹빛이 다르다. 또 유독 여기에만 필사기가 있는 것도 이 책이 묘동의 세책소에서 제작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한다. 108번 『현씨쌍린기』의 경우는 세책이라고 말하기 더욱 주저되는데, 제5권 뒤에 책주인에 대한 불평이 한두 줄 적혀 있어서 세책 유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제6권 뒤에 '경오팔월념일막필셔'라는 필사기가 있으며, 소설의 낙서 한군데에 '갑신'년이 적힌 것이 있다. 필사는 경오년인 1870년에 이루어졌고, 그 후 어느 시기에 세책집으로 흘러갔다가 갑신년인 1884년에 낙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처음에는 세책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세책으로 유통되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 있다. 애스턴 소장본에 궁체 소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애스턴은 궁체를 선호한 듯한데, 궁체 소설을 구입하는 과정에 세책집으로 흘러간 것을 입수하지 않았나 한다.

5. 결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관련 장서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의 전공과 시각에 따라 연구의 여지가 상당히

18) 박재연・김영, 2004 「애스턴 구장 번역고소설 필사본 『슈사유문(隋史遺文)』 연구: 고어자료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3,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박재연・김영 교주, 2004 『동유긔』, 이회문화사에 애스턴본의 영인이 있다.

남아 있는 자료군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각본, 소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연구되었는데, 자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슷한 관심에서 이들 자료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더 면밀히 살피기를 기대한다.

동방학연구소의 한국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은 1880년 중반 조선에 온 영국 공사 애스턴 구장본이다. 그의 한국어 학습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방식과 교재를 답습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시각, 일본인의 틀에서 조선을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애스턴 나름대로 조선의 현실과 당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기획한 것도 없지 않았다. 김재국을 시켜 조선의 이야기를 편집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문답체의 등장은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새롭게 편년이 알려진 1793년 간행의 『동몽선습』과 1803년 간행이 유력한 40장본 『설인귀전』은 조선 후기 서적의 상업적 유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방학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 점의 그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五園張承業模元鎭"라는 기록이 있는 그림(168)이고 다른 하나 箕山 김준근의 화첩(169)이다. 이 그림을 확인한 유춘동 선생의 말에 따르면 앞의 것은 액자에 들어 있는 것으로 진품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며, 뒤의 것은 기산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했다. 현재 대산재단의 지원으로 트로체비치와 구리예바 교수가 작성한 목록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다고 한다. 목록이 번역되면 더욱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논문투고일(2013. 8. 5), 심사일(2013. 11. 21), 게재확정일(2013. 12. 11)

참고문헌

러시아대장성, 1984(원저는 1900)『(국역)韓國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무진 편저, 1999『교린수지』, 홍문각.
박재연・김영 교주, 2004『동유긔』, 이회문화사.
편무진・岸田文隆 편, 2005『인어대방』, 불이문화.
_____, 2006『표민대화』, 불이문화.
이민희, 2005『파란, 폴란드, 뽈스까』, 소명출판.
이윤석, 2013『설인귀전 연구』, 경인문화사.
А.Ф. Троцевич, А.А. Гурьева, 2009 *Описание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ов корей 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2, Корей ские письменные памятн ики в рукописном отделе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чных рукописей Россий 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트로체비치・구리예바, 2009『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한국 관련 서적 목록』, 러시아학술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류부현, 1990「동몽선습의 서지 연구」,『서지학연구』5・6, 서지학회.
박재연・김영, 2004「애스턴 구장 번역고소설 필사본『슈사유문(隋史遺文)』연구 : 고어 자료를 중심으로」,『어문학논총』23,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울리아나(Kobyakova Uliana), 2008「애스톤문고 소장『Corean Tales』에 대한 고찰」,『서지학보』32, 한국서지학회.
박진완, 2010「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애스턴 문고의 한글 자료 - 한국어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한국어학』46, 한국어학회.
한승훈, 2010「조선의 불평등조약체제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한국근현대사연구』52, 한국근현대사학회.
정병설, 2012「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소장 경판한글소설 재론- 배접지를 통해 추론한 방각본의 간행 상황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42, 한국고전문학회.
허경진・유춘동, 2012「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전적에 대한 연구」,『열상고전연구』36, 열상고전연구회.
_____, 2013「애스턴(Aston)의 조선어 학습서『Corean Tales』의 성격과 특성」,『인문과학』98,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이혜은・유춘동, 2013「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한글 방각본 소설 연구」,『한국비블리아』24권 2호, 한국비블리아학회.

Park Songgyu, Ch'oe Toksu, Chong Ubong, Ho Sunch'o1., 2000 "Collections of Korean Manuscripts, Block-Prints, and Old-Print Books in Russia", *Manuscripta Orientalia*(International Journal for Oriental Manuscript Research), Vol. 6 No. 2.

Abstract

A Study on Korean Rare Books in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Jung, Byung Sul

There are a collection of Korean rare books in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 Saint-Peterburg, Russia. Most part of the collection have came from William George Aston(1841-1911)'s collection, the British consul in Korea(1884-1885). Aston have studied Korean by three steps, basic Korean, applied Korean, contemporary Korean. He have studied the Korean textbooks edited by the Japanese of Edo period, and some textbooks were edited by his order in Korea. *Manual of Korean* is bound two Korean textbooks by Japanese, *Korinshuchi* (交隣須知) and *Ringotaihou* (隣語大方). *Manual of Korean* is a basic Korean textbook for him and he also have used *Hyomintaiwa* (漂民對話) as a actual Korean dialogue textbook that also edited by Japanese. He made a Korean scholar (Kim Jaeguk) edit some books of Korean tales, the title are *A Corean Tale and Corean Tales*.

The collection also have important commercial wood-block prints in the 18th-19th century Joseon. The wood-block print novels in the collection are mostly early published books, not late 19th century, but early or mid 19th century. There are two the most important books in the collection. One is *Dongmongseonseup* (童蒙先習) and the other is *Seoringwijeon* (薛仁貴傳, the story of Chinese general Xue Rengui). The former is published in 1793 and the latter is assumed to published in 1803. The two books show some evidence of early commercial wood-block prints in Seoul.

Key words :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William George Aston, woodblock, woodblock novel